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저지른다. 중요한 사실은 그 실수를 통해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,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.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'그때와는 다르게 해보자'는 변화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.

도스토옙스키는 '죄책감을 부정하지 말고, 그 감정을 끌어안아 보세요.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불씨이기 때문입니다'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.

잘못은 우릴 규정하지 않는다. 그 잘못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사람됨을 만든다.